Message from the C.E.O

"본질을 잃지 않는 진정한 힘(power)은 균형(Balance)에서 나온다"

"지식사회에서 조직의 성공 필요조건은 조직구성원(consultant/instructor)들의 변화에 대한 강한 인식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입니다."

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.
아름다운 봄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에 실려 오는 것이 아니라,
한겨울을 이겨낸 동토(겨울 땅)의 한 구석에서 생명의 싹이 터져 나오면서 시작됩니다.
이것이 곧 사철이 돌아가는 균형 잡힌 자연의 힘이며 섭리인 것 같습니다.

지금 세계는 인류역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고도의 지식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
이러한 지식사회에서 조직의 성공 필요조건은 조직구성원(컨설턴트/강사)들의 변화에 대한 강한 인식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입니다.

피터 드러커는 지식사회에서 개인의 필요조건을 "Multi-Specialist"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여러 가지 일을 전문가적 수준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합니다. 사람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. 오랫동안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과 성취, 그리고 그 경계를 넘나들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조직도 지속적인 성장(Sustainable Growth)을 하기 위해서는 외적 내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그 본질 가치와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. 진정한 힘(power)은 균형(Balance)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

CK가 추구하는 "창조성 문화"는 어느 날 따듯한 바람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, 바로 이러한 Multi-Specialist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함으로써 꽃 피워 질 수 있습니다.

그 꽃내음이 향긋합니다.

Written by 대표이사 노상충 (James Roh)